‘날 것’과 ‘익힌 것’
갤러리 SOSO와 최상영의 소소한 구축

사실 갤러리 SOSO를 본 적이 이전에 한 번은 아니었다. 언제나 황홀히 헤어리를 가리지 않고 남은 우연히 마주한 공간 하나에 잠시나마 발길을 멈추고 가메라 풀레시를 비트러 적이 있다. 헤어리 한복판의 현대인 건축작가들에 저작권 내게 이 갤러리라는 한적한 도시를 정박감을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건물은 가와간곡의 최상영 신생이 복구도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가이자 건축주로 설계한 거란다. 그 건물을 그 건축가 자신의 안내로 다시 보게 된 것은 큰 폭발이었다.

갤러리 SOSO는 2007년, 이 동네 끝자락, 자루리 경기장에서 세워진 연면적 273.74㎡(약 83평)의 자극적인 건물이다. 처음부터 미술관이라는 특정 기능을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요인이 남쪽 복층 부분이 갤러리로 사용된다. 전면에서 보일 듯 닫힌 산자락에 몸을 가리는 복층의 단층 부분은 카페로 사용되며, 그 옆에는 아예 테라스를 이고 있다. 그리고 이 갤러리와 카페 사이는 대게의 경사를 따르는 계단이 가로지르며 두 영역을 구분할 때 동시에 연결된다. 더욱이 갤러리 2층과 카페의 육상 테라스를 연결하는 브리지를 두고서 방문자의 동선에 즐거운 선택의 여지를 준다 하겠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능적으로는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가, 재래식으로는 ‘Head’와 ‘Tail’이라는 요소가 전체를 이루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로를 면해 갤러리의 뒷편은 펼쳐진 터라지로 둘러싸는 방문자들을 유도하고, 그 전면과 북쪽면이 유리로 덮여져서 건물 전체의 인상을 좁혀한다. 그리고 외부 공간과 마주가지로 산지의 경사를 따르는 내부는 그 공간이 수직적으로 분화되어 1층, 1.5층, 2층의 테마를 갖는다. 이러한 수직적 공간분화는 작가작가라는 그 흔적적 단순함과 크게 대조를 이루며 자칫 맹물할 수 있는 내부에 다양한 이벤트를 가능하게 한다.

오가 최상영의 갤러리 SOSO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스스테이repeat의 건축이다. 미스의 그림자로 그 어린 현대건축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지사, 클러스터와 유리상의 mistransg정이나 이러한 구축을 위해 건축가가 선정한 미스의 도달에 대한 정직한 연구, 그리고 그것이 건물의 주요 미학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스의 클러스터의 흔적을 잘 알 수 있다. 하나 멀어진 기계시대, 근대건축의 정점을 찍었던 현대건축가의 교리와 현대건축가의 작품들에 그대로 나타나는 만하다. 가장 큰 차이가 역시 목적의 사용이다. 미스의 차이는 강철이 된 날카로운 아름답게 정직한 인간의 정서여 세계한 듯한 몸짓을 보였다면, 나무가 갖는 체온과 순결은 우리와 그것과 그저 다름의 깊이를 갖는다. 갤러리 내부 공간을 뒤판하는 기후와 보의 클루비의 몸짓은 최상영의 차량으로 일본 연구소와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미네 재단이 불러운 이 번에 이 시스템이 정말 ‘전환점’이었을까? 에 대해서는 아직 부득이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재료를 사용한 현대공예에 맞게 적용하였다는 사실은 의당 놀랍 BorderRadius와 이완한 대화, 나무로 인해 달콤한 풍경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재료는 역시 목적로 내장된 카페용으로 더 적극 옮겨가며, 특히 목재 테크의 역할 테라스 공간에 의해서 재단된 마무와 자연의 마무가 교감이 충분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내부의 공간과 자연의 자연이었다. 혹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라고 어디까지가 자연인가? 주어진 대지의 지형을 따라 건물을 높을 때까지 자연과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적당한 폭이 그 이름처럼 소소한 구축의 미학이 보인다. 레미스트로파가 제시한 자연의 세계의 the raw 인간의 문화 the cooked 사이에는 흩어진 건강과 변화가 존재한다. ‘이런 것’이 자연작가 착각했던 것이 미스 등 우리 근대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현대인들은 ‘날 것’이 주는 원초적 품깔을 시각화하고 있지 않나? 최상영이 갤러리 SOSO에서 담아낸 ‘날 것’과 ‘익힌 것’에 소박한 배합, 바로 이것이 나의 구미를 닦았던 이유일 것이다.

위에서처럼 태양이 떠오르는 간, 풍배를 상상한다. 생각보다 갤러리 내부면에 반사되는 숲속 마을 나뭇가지들에 돌고나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한방의 와이어카리아를 준비할 테라스. 이 작은 건물의 테라스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각이다.

김현성

김현성

김현성 교수는 영국 세인트리드대학교에서 근대건축사를 연구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학사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한국건축개방연구회 주관의гля고안에서 활동하고 있다.